

# 전기차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한 실무협약 착수... 자동 충전·결제 도입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실무협약 착수

【관련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28일에 한국환경공단,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전기차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자동 충전·결제 서비스(PnC\*, Plug and Charge)’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약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 전기차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면 충전기가 자동으로 차량을 인식하고, 충전과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한 번에 진행되는 국제 표준 충전 기술

이번 실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전기차와 충전기 간 인증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호환성과 보안성이 확보된 공공 자동 충전·결제 통합 인증시스템(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 디지털 인증서와 암호화키를 활용, 전기차를 충전할 때 충전기, 차량, 결제 서버 간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안전한 인증과 결제를 위한 보안시스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 충전·결제 통합 인증시스템의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고, 다양한 차종 및 충전기 간의 호환성 확보와 해킹 방지를 위한 암호화 통신 등 기술적 검증 작업 계획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무협약과 기술 검증을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위주의 공공 급속충전기 등을 중심으로 자동 충전·결제 시스템을 일부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자동 충전·결제 기능이 도입되면, 사용자가 충전할 때마다 번거롭게 회원 카드나 신용카드를 꺼낼 필요 없이 충전 케이블을 꽂기만 해도 차량 인식부터 충전과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국민들의 전기차 이용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붙임 전기자동차 자동 충전·결제서비스 예시.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박판규 (044-201-6880)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규 (044-201-6885)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부 장
	녹색수송계획부	담당자	차 장	강형모 (032-590-5020)



전기차 PnC : 간편하고 스마트한 전기차 충전

